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벤쿠버
파견대학	랑가라컬리지	기간	2018.8.5.(토) ~ 2018.8.2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West 49th Avenue에 위치해있으며 5분정도 떨어진 거리에 Langara 49th station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학교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스타벅스, 팀홀튼, 서브웨이 등 다양한 시설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업	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 주세요. 먼저 '듣기'로 레벨테스트를 통해 분반을 합니다. 수업은 회화를 위주로 진행되며 그룹별 또는 파트너끼리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합니다. 저널을 통해 '쓰기'를 하기도 하는데 저널은 제출해야하는 반도 있고 하지 않는 반도 있는 등 반마다 선생님의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강사 분들은 모두 정말 친절하십니다. 과제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 오래 걸리지 않는 과제들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시면 모두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여 다른 반과 함께 하기도 하고 다양한 투어 등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 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Discover Vancouver : 운동화 등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며 투어를 하기 때문에 편한 신발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kayaking :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등 안전요원들이 안내해주고 케어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전하게 카약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Whistler Trip : 두꺼운 외투 산을 올라가면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후드집업같은 외투가 필요합니다. Aquarium Museum of Vancouver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자외선이 강하여 낮에는 햇빛이 뜨겁지만 아침저녁으로는 기온이 내려가 서늘합니다. 하루 비가온 뒤에는 더 기온이 내려갔었습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대부분 안전합니다. 하지만 다운타운 쪽에는 홈리스들이 많고 밤에는 사 람들이 많지 않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일본인 친구와 함께 홈스테이를 하였는데 지하에 각자의 방이 있었습니 다. 샤워시간은 10분 이내였고 저녁 11시 이전까지만 씻을 수 있었습니 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o)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평일 저녁과 주말은 거의 밖에서 식사를 해결을 하였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저는 학교까지 환승 없이 하나의 버스로 20분정도 걸렸습니다. 캐나다의 대중교통 이용은 우리나라보다 복잡하지 않아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쉽 습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1,858,700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300,000	
쇼핑	500,000	
관광비	70,000	페리, 입장료 등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캐나다는 동전이 많기 때문에 동전지갑을 챙겨 가시는 것이 좋고 비상약을 미리 구비해 가시고 비가 올 것을 대비하여 접이식 우산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심칩을 한국에서 미리 구매하시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이라고 해도 생각보다 기온이 낮을 때가 많으니 여름옷과 가을 옷을 적절히 챙겨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학교에 다니는 것이 즐거울 정도로 수업도 너무 재미있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주라는 시간동안 너무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소중한 추억들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빅토리아주의사당



퀸엘리자베스공원



룩아웃야경



잉글리시베이



스탠리파크



휘슬러